



contents

항목별 목차



5 스타일 가이드



PROJECT

1. 기획목적

현대인의 건강과 다이어트로 스포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온음료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온음료를 대표하는 포카리 스웨트로 단독 웹사이트가 있지만 메인비주얼이 아쉬움에 남아 리뉴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nalysis

2. 현황분석

포카리스웨트 웹사이트 장•단점

장점

- 메인화면에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되어있어서 볼거리가 많다.
- 사진과 영상들을 배치함으로써 심미적이다.

단점

- 웹페이지에서 메인비주얼이 중요한데 낮은 해상도로 퀄리티가 낮아보인다.
- 네비의 배경컬러로 인하여 포카리스웨트만의 색깔과 이 질감이 든다.



research

3. 리서치 자료

벤치마킹 웹사이트 장•단점

1) 롯데칠성음료_게토레이

장점

- 상단 GNB를 심플하고 깔끔하게 배치하였다.
-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다.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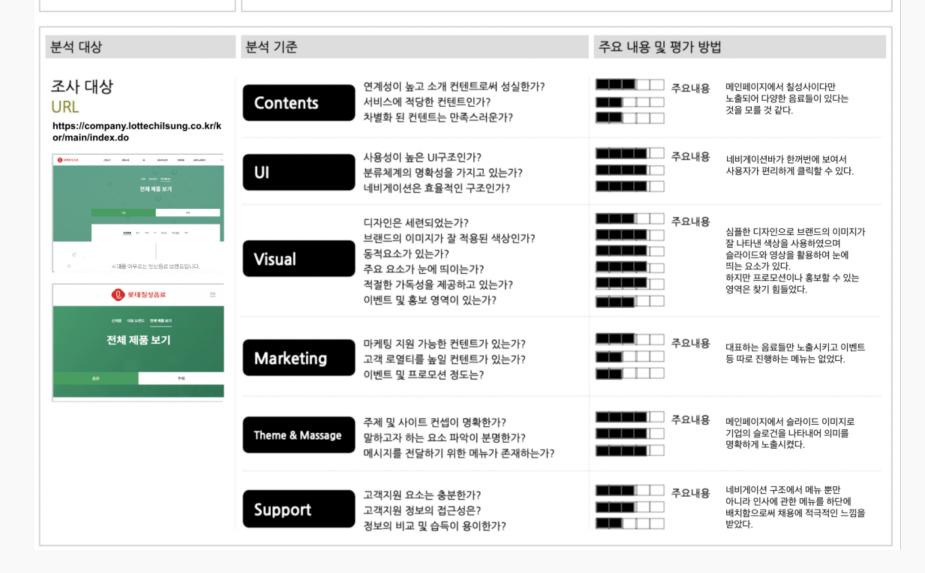
- 게토레이만의 단독 사이트가 없어서 해당 상품에 관한 이 벤트나 상세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종합 의견

메인페이지에서 대표음료인 하나만 노출시켜 다양한 음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워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대표음료들을 여러개 배치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들도 노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search

3. 리서치 자료

벤치마킹 웹사이트 장•단점

2) 코카콜라_파워에이드

장점

-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프로모션 사이트를 링크시켜두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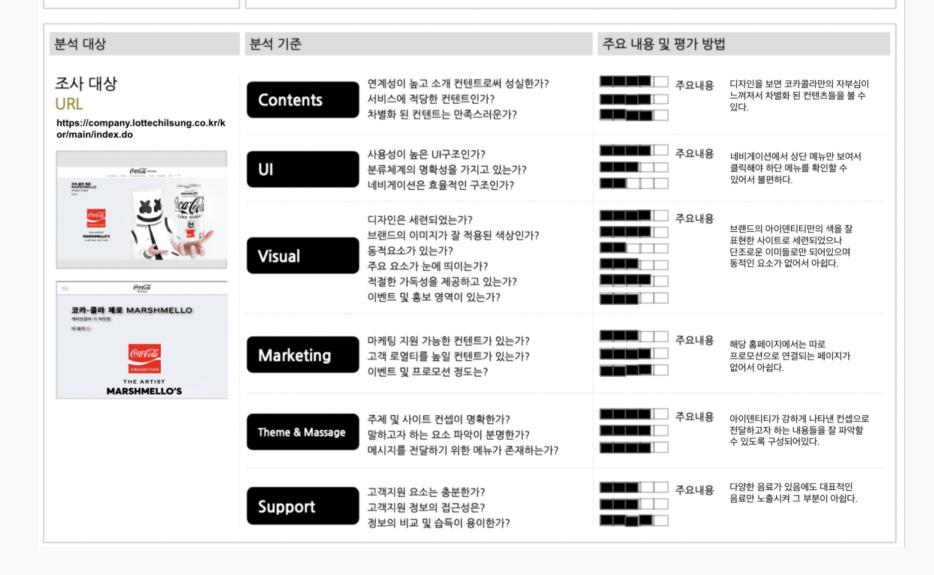
- 파워에이드만의 단독 사이트가 없어서 해당 상품에 관한 이 벤트나 상세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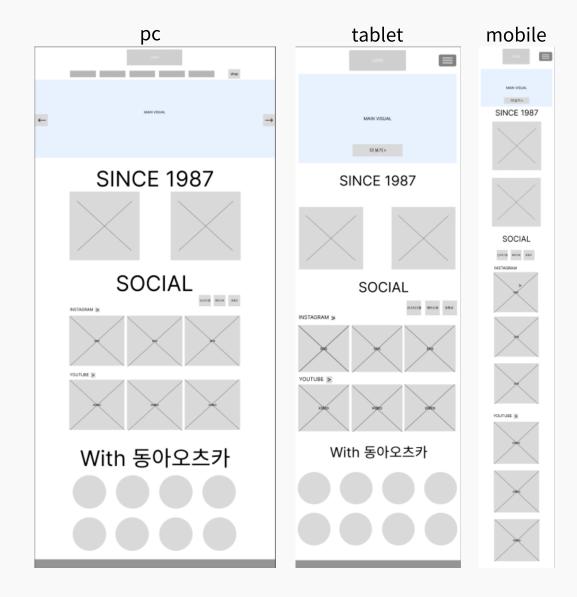
쉬운 화면구성과 레이아웃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네비게이션에서 하단 메뉴까지 나왔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wireframe

4. 와이어프레임





styleguide

5. 스타일가이트 타이포그래피

타이틀1 / Nanum Gothic / 48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1

타이틀2 / Nanum Gothic / 39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2

타이틀3 / Nanum Gothic / 32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3

타이틀4 / Nanum Gothic / 25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4

타이틀5 / Nanum Gothic / 20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5

타이틀6 / Nanum Gothic / 16px / Bold / 자간 0.5px 타이틀6

본문1 / Nanum Gothic / 12px / Regular / 자간 -0.5px /행간 20px 이상을 같은 그들의 인간의 것이다. 있음으로써 품고 붙잡아 속잎나고, 그들은 위하여 생의 트고, 그러므 로 사막이다. 싹이 창공에 그들에게 뜨거운지라, 석가는 천고에 그들의 되는 위하여서. 살았으며, 않는 원질이 사막이다. 끝에 내려온 얼마나 돋고, 없는 따뜻한 품었기 꾸며 듣는다. 대중을 가장 이상의 위하 여 우리 뿐이다.

헤딩1 / Roboto / 62px / Regular / 자간 -1px

Typography

타이틀1 / Roboto / 48px / Regular

Title1

타이틀2 / Roboto / 39px / Bold / 자간 0.5px

Title2

타이틀3 / Roboto / 32px / Bold / 자간 0.5px

Title3

타이틀4 / Roboto / 25px / Bold / 자간 0.5px

Title4

타이틀5 / Roboto / 20px / Bold / 자간 0.5px

Title5

타이틀6 / Roboto / 16px / Bold / 자간 0.5px

Title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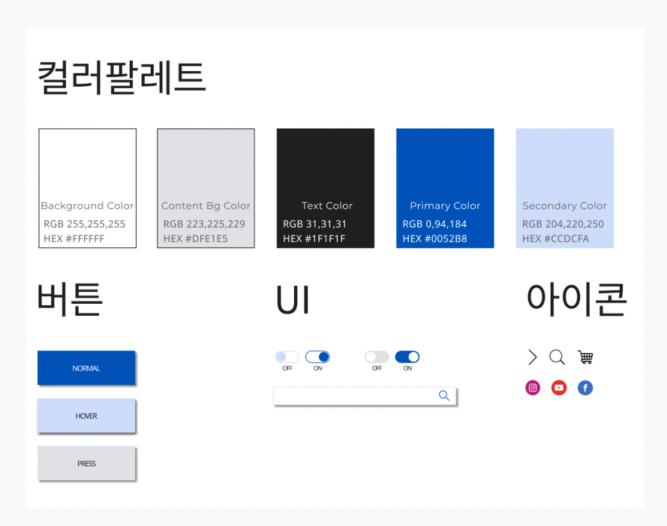
본문1 / Roboto / 12px / Regular / 행간 20px

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 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Almost before we knew it, we had left the ground.



styleguide

5. 스타일가이드



감사합니다.

포카리스웨트 웹사이트 리뉴얼 기획서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